제8강 고형렬의 「사진리 대설」

(1, 2교시)

사진리 대설

하아얀 눈이 마당을 여드레 내리고 나니
눈이 정말로 무서워졌다. 아흐레 만에 날이 드니
눈물이 나는 오후였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선처럼
해도 우물우물 빨리 서산으로 지려하고
마을은 오랜만에 빨간 불빛들을 서로 볼 수 있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친구들의 말소리도 들려왔다.
언제나 어둡고 높고 촌스럽기만 하던 설악산이
사진리하고는 바닷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산이
그날 처음으로 야산이 되는 것을 보았다.
우리하고는 아무 일도 없는데 거만하게 하늘로 솟았던
산이 순하디 순해져서 고요하기 이를 데 없었던 것이다.
육백 미터 팔백 미터 산과 수백 미터 낭떠러지가
눈으로 평지가 된 것처럼 산지봉이 야트막하였다.
몇 개의 봉우리만이 흐릿한 윤곽을 드러내고
산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어촌일지라도 인가 쪽으로 다가왔다.
뽀야니 떡가루를 뒤집어쓰고 잠든 눈 속에 내려앉아서
눈주목 눈측백 눈잣나무가 아주 눈에서 사라져버렸다.
모든 형상과 색이 파묻혀 어떤 움직임도 소리도 없었다.
세상은 사진리에서 그 끝까지가 고요, 고요였다.
공룡 청봉이라는 것들이 눈앞에서 잡힐 듯하였다.
후우 세게 입김을 불면 날아가 버릴 듯이 작아져서
마치 산은 사진리에서 멀리로 내려다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날 오후 이후 이때까지 설악이
그처럼 낮아지고 아름다운 적을 본 적이 없었는데
해가 지고도 한참을 설광 때문에 새벽 같았다.
발간 등불과 후레쉬 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던 마을
사진리는 그제서야 사람 사는 마을이 되었다.
아흐레 동안 산이 눈 속에 파묻혔던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내다본 동해는
무슨 일인지 물속에 다니는 고기 소리가 날듯이
맑게 개인 하늘 아래 호수처럼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눈도 한 송이 쌓이지 않고, 그만으로 흐르고 있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사진리는 속초의 북쪽에 있음.

1. 고형렬에 대하여

1954년생. 속초고 졸업. 창작과비평사 편집국 시선기획위원.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역임. 1981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 나는 그를 이렇게 평한다. "시에 의한, 시를 위한, 시의 고형렬." 시집으로 『대청봉 수박밭』 이후 여러 권. 시 계간지 『시평』 발행자.

2. 해설 및 감상의 포인트 : 내적 사건

① 내적 사건 → 내연/외연 : 외연적 의미란 사전에 정의된 일반적인 말의 정의. 내연적 의미란, 어떤 특정한 문맥 속에서 독자가 외연적 의미 이외에 파악, 감지하도록 되어 있는 의미.

② 내연적 의미의 세 가지 : 개인적 체험의 결과. 집단적인 의미(민족, 사회, 전통). 인류 보편적 체험

3. 고형렬의 '견성성불(見性成佛)' 그리고 '반구저기(反求諸己)'

① 견성성불 : 불교의 가장 근본 되는 가르침. 자신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가르침에 따로 전하는 수단(책)이 없고(敎外別傳),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不立文字)는 선종의 가르침과 짝을 이룬다. 시의 혜안과 가르침은 이것과도 닮지 않았을까.

② 반구저기 : 『중용』에 나오는 "射有似乎君子, 失諸正鵠, 反求諸其身"(활쏘기는 군자와 닮아 있다. 바로 맞추지 못하거든, 제 몸을 돌아보라)에서 따왔다. 일이 잘되고 되지 않음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음을 깊이 반성하라는 말.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